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 중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한 육군특전사 비호부대 강련용 중사, 이민섭 하사, 임득균 중사(왼쪽부터).



‘국민의 군대’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다 ⑤ 배홍채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단장

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1월 우리 군은 질병관리청의 요청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단(지원단)’을 편성했다. 육군수도군단,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에서 파견된 지원단 소속 장병들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임무의 최일선에서 있다. 올해 6월 초부터 지원단장 임무를 수행하는 배홍채 육군대령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전 장병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구슬땀, 명예롭게 평가받아야죠”

하루 평균 230여 명 검역지원 투입
1일 3회 방역·군의관 숙소 상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철저 대비

일일 3교대 근무 후 숙소서 대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230여 명의 장병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지원을 하고 있다. 장병들은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 △유증상자 이송 지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및 백신 접종 여부 확인 △휴대전화 자가격리·진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자가·시설 격리 대상 구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5000여 명에 이른다.

현장 검역 인력은 별다른 휴식일 없이 일일 3교대로 투입되며, 근무가 끝나면 버스로 15분 거리의 숙소에서 대기한다.

배 단장은 “장병들은 질병관리청, 경찰, 소

방,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는 델타 변이 등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국가별 감염병 발생 현황을 토대로 강화된 검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국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침과 장병들이 안내하는 지침이 다르다는 식이다.

배 단장은 “일부가 장병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대할 때면 힘이 빠진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장병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유관기관 협조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위험한 현장서 최선…국민 위해 헌신

장병들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국민의 군대’라는 일념으로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배 단

장은 “입국자들이 건네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위국헌신, 책임완수를 실천하는 장병들의 구슬땀은 명예롭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검역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전력투구 중이다. 그는 “공항 내 모든 임무 수행 장소에서 1일 3회 방역, 일화용 장갑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임무 투입 전후와 점호 때 체온 측정, 군의관 숙소 상주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원단 장병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도 계속 커지는 중이다.

배 단장은 “코로나19가 한동안 지구촌 모든 국가·국민과 공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원단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최한영 기자/사진=부대 제공

▶ 배홍채(오른쪽)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단장이 지원단 소속 장병과 검역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배홍채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단장이 소속 장병들에게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완벽한 팀워크로 소중한 생명 구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장병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 전개 중
전복 차량 발견…운전자 사고자 구출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을 전개하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이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특전사 비호부대 강련용·임득균 중사와 이민섭 하사.

세 명의 특전요원들은 지난달 30일 백신 수송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서천군주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이들은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통증을 호소하던 운전자 구출에 나섰다. 장병들은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한 뒤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

다. 이어 운전자를 사고 차량에서 꺼내 안전지대로 옮겼다.

의무부서관인 임 중사는 운전자의 환부와 운동·감각 기능, 2차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동료들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괜찮다’ ‘곧 119가 오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운전자가 입술을 떨며 추위를 느끼자 이 하사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덮어줬다. 또 운전자 가족에게 전화해 현재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설명했다.

세 명의 특전요원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 옆을 지키고 부대로 복귀했다.

임 중사는 “그동안 숙달한 응급처치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팀장으로 상황을 주도한 강 중사는 “자분하게 조치해 국민의 생명을 구한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운전자가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이원준 기자/사진=부대 제공

오빠들은 해군 SSU로… 여동생은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푸른 물살 가르다

정상록·정상철 중사

해군1함대·특수전전단서 복무

정현영 양 올림픽 800m 계영 출전

2020 도쿄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수영 종목에 선수로 참가한 여동생을 둔 해군 부사관 형제의 사연이 화제다.

1함대 구조작전중대 정상록 중사와 특수전전단 해난구조대 정상철 중사가 주인공. 심해잠수사(SSU)로 근무하는 형제의 여동생 정현영(거제고 1학년) 양은 도쿄올림픽 800m 계영에 출전했다. 바다가 인접한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3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익혔다.

첫째 정상록 중사는 SSU 대원으로 세월호 참사, 육지도 어선 침몰,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 둘째 정상철 중사는 형의 모습을 보고 SSU에 도전해 3년 만에 합격했다. 현재는 해외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돼 미 항공구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여동생 정현영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한 첫 올림픽에서 값진 경험을 쌓았다.

정상록 중사는 “나와 남동생은 해군 SSU로, 여동생은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조국을 위해 물살을 가르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수 기자

▶ 해군1함대 정상록 중사가 합정 하부에 어망 또는 이물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선저검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상철 중사

▶▶ 정상록·상철 중사의 여동생인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현영 양. 사진 제공=정상철 중사

▶▶▶ 해군특수전전단 정상철 중사가 한미연합구조전 훈련에 참가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해군 제공

